

전북도, 기업투자협약 체결 잇따라

타르콤포리아,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탄소소재 전진기지 조성 등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 기업은 물론 도의 성장동력사업인 자동차 분야 기업 등의 투자 협약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주)타르콤포리아(대표이사 박종연)가 김제자유무역지역에 미래 첨단 탄소소재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전북도 등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에 에스앤에프를 포함한 6개 기업이 도에 투자 의향을 보이며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탄소소재 연료전지와 식품첨가물 제조 기업, 자동차 부품 제

조 기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는 (주)코아비오와 (주)씨앤씨 레그비, 239 등 3개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중 (주)타르콤포리아는 미국 CSI사와 비즈포스트그룹의 탄소복합소재 기술과 자금이 공동 투자돼 운영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복합소재 탄소파일을 생산하게 된다.

총 99,000㎡(약 3만평)에 300억원이 투자돼 1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타르콤포리아는 특히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활용한 특수수지생산기술이 우수한 기업이다.

도는 타르콤포리아의 투자로 새만금 지역의 탄소복합소재 파일 수요창출은 물론 타르콤포리아가 전북지역에

서 탄소복합소재 생산클러스터 조성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수출생산 전진기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투자 협약도 이어졌다. 완주 테크노밸리3단지 등에 투자 의향을 보인 에스앤에프 등 6개 기업은 총 500억원정도가 투자돼 14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들기업은 도의 성장동력사업인 자동차 분야의 에스앤에프와 사와 스테비아 등의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주)세동섬유, 탄소소재 그래핀을 이용해 연료전지를 생산할 계획인 기업 등 도내 주력 산업 뿐만 아니라 도급 및 철구조물 주력업체(주)수립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우

수 중소기업들이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농생명식품 분야 기업들의 MOU도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입주해 투자할 기업들로 발효음료 시장 개화를 위한 (주)코아비오와 귀뚜라미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연구개발 중인 239, 커피원두를 가공해 수출하는 (유)씨앤씨레그비 등이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경총 "청년고용할당제 미련 접고일자리제공급 모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총선 공약에 우려를 제기하며 각 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부디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채용을 늘리도록 강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발상은 대단히 비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 등 성장을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송하진도지사, 김도현(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김학홍 행정자치부 민간협력 과장, 김기원(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훈(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장 250여명이 참석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1회 2016 전국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찬회 및 사무국장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 벼 재해보험 가입 전국 최고 수준

11,553ha로 전국 41,678ha의 28% 차지... 지난해 보다 3배 늘어

전북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1,553ha로 전국 41,678ha의 28%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보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가입율은 15%로 전국 최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는 치밀하고 차별화된 농업인 홍보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도는 도청 내 설치된 광고·전광판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해 직

원들에게 농촌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보험을 가입 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도는 농업인 교육전문기관인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영농교육을 하기 전에 벼 재해보험 상품을 설명하도록 조치하고, 시군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책임성과 의무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도는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인 오는 5월31일까지 시·군·지역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4만6천ha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없으면 보험료 중 납부액의 70% 정도를 가입 농업인에게 되돌려 주는 벼 무사고환급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농가 부담이 적어진 만큼, 벼 이앙이전까지 모든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정부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 열어

사이드 미러 없는 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개정 의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신청 가능 등

내년부터 실외후시경(사이드 미러)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몰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과 신의료 기술평가가 통합 운영된다.

이밖에도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맛이 달라 포장지를 변경한 경우 기존에는 포장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이름과 규격이 같으면 포장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시일 내에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된다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과 연비 개선으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 두 개의 허가를 받기 위해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해 동시에 심의를 받게 한다. 이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체외진단 검사 기기와 유전자 검사 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대상을 기존 22%에서 71%로 3배 이상 확대하고, 평가 기간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 이름 규격 등이 같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포장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의료 폐기물 중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안전 외에도 한국경제연구원 이발·건 의안 중복규제 50건 중 개선 조치가 이뤄진 34건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당, "북한 도발 계속 될 땐 대북 제재 강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회의를 갖고 미사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과 대북 관련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철수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장우 대변인, 유의동 원내대변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정원 북한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대행은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안보 걱

정이 큰 상황"이라며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 도발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보적, 외교적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안보 불감증"이라며 "정치권, 정부, 국민 모두가 땀땀 땀겨 경제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무 차관은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 살리는 아랑곳 않고 김정은 체제 유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북한이 가능한 한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이지스함 등 활용된 작전 수행, 길체 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체계 발전 등 통해 실질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사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 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5년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